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8호 [루게 제24651호] 주제 103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선군절 54돐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민군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주체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
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
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
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놓여
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
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원, 기업
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목으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
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
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등의 글발이 쇠여져있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김정은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참가자들은 선군의 보검으로 우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주체혁명
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의 백승의 역사를 찬탄한 빛내여갈

강위력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끝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찾아오
는 사람들의 물결은 김일성군사종
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도 그칠새없이
이어졌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근로
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빛내
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
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
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
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일조우호련대 사이다마현민회의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선군
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4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
를 방문하고있는 일조우호련대 사이다
의장인 히모리 후미히로미가 25일 해방

마현민회의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
다라는 글발이 쇠여져있었다.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
다》라는 글발이 쇠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절 54돐에 즈음하여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혁명도
창원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대대표단
을 비롯한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
하였다.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셨으며
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
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
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따라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겠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그들은 탁월한 선군혁명령도
로 후손만대의 강성변영을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
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

총련일대대표단 단장은 방
문록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 군대 책임일군들 숭고한 경의 표시

선군절 54돐에 즈음하여 당
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군, 해군, 항공 및 방공군, 로
농적위군에게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
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
구니가 진정되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
는 글발이 쇠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불태
의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시였으며
후손만대의 무궁변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
시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
이시며 주체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
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
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
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향열에
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록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열화같은 청춘과 뜨거운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화같은 청춘과 뜨거운

[조선중앙통신]

백전백승 선군혁명령도사에 영원불멸할 애국헌신의 대장정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군대의 5 200여개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세의 위인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전하는 뜻깊은 선군절이 54돐의 년
를 맞이하러왔다.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신성된다. 총대철학을 역적불변의
신조로 삼고서 군령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기였다.

한 로고의 자욱을 이어가시였다.
나라의 군사지지를 철옹성같이 다
지시기 위해 최전선부대들의 전방
소와 감시소, 민경초소도 찾으시고
각급 군사학교들, 비행부대, 탱크부
대, 해군부대 등 모든 군종, 병종의
부대, 구부대들을 불철주야로 현지
지도하시였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함
수령님을 위하여 한몫씩떠서 싸우
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200여
개 장병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제일투사,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시였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옹위하
는것이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던
1990년대에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
7년대가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
고 인민군부대들에서 오죽홍7년대정
호쟁취운동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
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74년 11월
이룩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시며 부
대와 구부대, 병사들이 전투훈련경
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총화무진하시
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자욱은 적들
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판문점과
351고지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
강국의 생세가 솟아오르며 되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령이 높이 모셨다는 태양조선
의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이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
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원, 기업
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목으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건설위업
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실
철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였다.
백두령정의 선군혁명령도의 시작을
알리는 력사의 선언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쳐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쳐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90년대의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우 리 군인들에게 멸적의 선군의지
기 생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도 안겨
주시고 혁명의 총대와 함께 삶을 빛내
이도록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최고사령부를 최전방으로 두시고
대 소한의 강우위, 삼복의 무더위와 폭
우도 가림없이 전진시찰의 길을 이
여가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베풀어
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은 전군을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같게 하려는 혼연일체의 대오로
군건히 다져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2(2013)년 선군절에 즈음하여
력사적로작 《김정일 동지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기》를 발표하시여
어버이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업적이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해주
시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회 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
위업의 계승과 선군혁명령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사건이였다.

민군대에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한 구호를 총적
파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
전투정치훈련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
려 부대의 전투력을 백승으로 다질데
대한 사상 등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건설의 근본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수령결사옹위의 혁명군대건설리사
과 목표를 천명하시는데것으로부터 인
민군대에 대한 령도를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리방천초
소를 휘젓없이 찾으면서 혁명군대의
정치사상강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쳐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쳐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90년대의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우 리 군인들에게 멸적의 선군의지
기 생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도 안겨
주시고 혁명의 총대와 함께 삶을 빛내
이도록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최고사령부를 최전방으로 두시고
대 소한의 강우위, 삼복의 무더위와 폭
우도 가림없이 전진시찰의 길을 이
여가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베풀어
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은 전군을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같게 하려는 혼연일체의 대오로
군건히 다져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2(2013)년 선군절에 즈음하여
력사적로작 《김정일 동지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기》를 발표하시여
어버이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업적이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해주
시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회 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
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
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인민군부
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걸으면서 인민군대를 불패
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
로 전진시켜오시였습디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쳐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쳐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쳐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90년대의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우 리 군인들에게 멸적의 선군의지
기 생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도 안겨
주시고 혁명의 총대와 함께 삶을 빛내
이도록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최고사령부를 최전방으로 두시고
대 소한의 강우위, 삼복의 무더위와 폭
우도 가림없이 전진시찰의 길을 이
여가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베풀어
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은 전군을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같게 하려는 혼연일체의 대오로
군건히 다져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2(2013)년 선군절에 즈음하여
력사적로작 《김정일 동지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기》를 발표하시여
어버이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업적이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해주
시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회 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선군혁명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4돛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승리는 대를 이어》**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돛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승리는 대를 이어》가 25일 봉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주체의 군건설사와 부강조국건설사가 획기적인 리정표를 세긴 경사로운 선군철을 맞이한 관람자들의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다.

김영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기관, 공

장,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위대한 선군령장 만만세》, 녀성독창 《선군의 나의 조국아》, 혼성2중창과 방창 《이 강산 높은 명협한 길에》, 녀성중창 《애국과 흥모》, 남성5중창 《민음의 노래》, 바산2중주와 남성중창 《전선행렬차》, 가야금병창과 남성방창 《바다 만풍가》, 남성독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남성대중창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특창적인 선군명령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한차례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사회주의수호전, 붉은기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시작하신 54돛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최전방에 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영원히 그대의 아들》, 남성대중창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

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선군명령도의 울림에서 우리 당의 선군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자리한 백두산혁명강군의 크나큰 긍지와 광만이 차넘치는 무대에 이르러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시작하신 54돛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철리를 새겨주는 《천군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인민의 환희》,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을아》의 노래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군계 모퉁이 필승의 신심드높이 반체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결의로 충만된 공연은 종무 《승리는 대를 이어》로 끝났다.

우리 혁명의 지도적지인 선군혁명사상과 위대한 당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내 나라의 영원히 백두산대국으로 위용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돛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개신문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고 강성할 태일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뜻깊은 선군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쳐 있었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며 주체의 선군대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깊게 분출되는 속에 《위대한 선군령장 만만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청년학생들은 우리 조국을 불

태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민족만대에 빛내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광범이 빛나는 《노래하세 천군한 인민의 장군》,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등의 노래선전에 맞추어 아름다운 춤출동을 이어나갔다.

청춘의 기백과 열정이 넘치는 무도회장에는 《인민의 환희》, 《그 품이 제일 좋아》,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갔다.

최세의 선군명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갖

곳이 이어나가는 청년전위들의 환희와 격정이 무도회장에 끓어올랐다.

《7.27형적》, 《승리는 대를 이어》, 《전선에서 만만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깨들씩 손뼉을 치는 참가자들의 열광마당에는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려가는 계승자들의 끝없는 기쁨과 광만이 넘쳐 있었다.

그 어떤 역풍이 불어와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해가는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떨쳐갈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양 노래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는다》가 우렁찬 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이날 각 도소재자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쿠바외무성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5일 쿠바외무성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탁월한 선군 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통성된 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었으며 세계사 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철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

백두산대국의 뜻깊은 선군절 54돛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최세의 천출명장의 두리에 일신단결하여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비약의 년대를 펼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25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돛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새겨진 력사의 이날은 나라 방방곡곡은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데는 우리 당과 군대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사람들이 물결이 끊이지 끊이지 울려 퍼졌다.

수도의 국립연극극장에서선군혁명명령도 선군절을 축하하는 혁명

극 《승리의 기치따라》공연이 있었다.

공연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명철한 전략술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영웅조선의 진승신화를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의 철세의 위인상과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세운 조국수호자들의 투쟁정신을 감동있게 형상하였다.

만수대에술단 예술인들은 동평양대극장에서 남성독창 《우리의 총대》, 녀성독창 《나의 노래》, 혼성4중창 《변영하여라 로동당시대》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예술인들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과 거창한 실천으로 전인민당의 선군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령도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대원수님의 영적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평양교예극장에서는 국립교예단 배우들이 철세위인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며 뿌려놓으신 만

부의 씨앗들이 풍만한 결실을 맺는 조국의 현실과 인민의 기쁨을 체격교에 《날과람의 기상》, 《날아다니는 처녀들》, 희극교예 《축하합니다》, 요술 《모험가들》 등에 담았다.

함흥대극장에서 열린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에서는 판현악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교향시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비롯한 종목들이 무대에 펼쳐졌다.

맘에 절은 아전복과 얇아진 단벌솜옷차림으로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선군혁명만리길을 걸음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기록한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들춰보게 하는 장중하고도 정서적인 음악선율은 관람자들이 희세의 선군명장의 애국헌신의 선군절이 있었기에 부강조국건설의 역전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평양악도, 함경북도, 황해남도예술단의 경축공연들은 도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선군혁명승리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 주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천리마제강련화기업소를 비롯한 각지의 건설장들과 기관, 기업소, 공장 과 농장들에서 다채로운 체육문화행사가들이 진행되었다.

이날 저녁 각지에 펼쳐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명멸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위대한 선군대양항아,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환희의 노래들이 맞추어 썩씩하고 생기 발랄한 춤출동을 펼치는 청년학생들은 대적전장들마다에서 당의 선군혁명위업의 총칙한 계승자, 청년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뜻깊은 명절을 성대히 경축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신단결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변함없이 걸으신 선군의 길을 따라 역적진군해갈 열의에 넘쳐 있었다.

수도의 어린이들이 받아안은 은정깊은 포도

어머니의 송고한 후대 사랑이 온 나라 강산에 활짝 꽃피어나는 속에 평양시의 타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육아원, 애육원, 미림학원에 원아들이 금수산태양궁전 포도원에서 수확한 향기로운 포도송이를 가슴가득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재배시험을 하시고 그 이룩까지 지어주신 포도나무를 위해 애도 알알이 탐스러운 포도들이 달렸다.

포도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포도나무들에 대한 비배판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많은 량의 포도를 수확하였다.

은 나라 아이들의 천이머리가 되어서 뜨거운 사랑과 은정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곳에서 따들인 포도를 수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수도의 원아들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받아안은 포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대를 꽃꽂이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이 될 용히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 사랑의 결정체이다.

24일과 25일 싱싱한 포도

들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평양시의 타아소, 유치원들과 육아원, 애육원, 미림학원에 도착하였다.

보기도 먹음직스럽고 향기가득한 포도송이를 받아안고 기쁨에 겨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유한 모습과 교양된, 교원들은 날을 따라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송고한 후대 사랑을 받들어 우리 어린이들을 강성조선의 역센 기둥감들로 키워갈 열의에 넘쳐 있었다.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조선의 국력

선군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야 요베주 로동당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전시회와 영화감상회, 나이제리아 아프리카주의자대회, 기네군 알라미 싸모리 투레병영에서는 영화감상회가 20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품과 선군조선의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 《조선의 총대》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나이제리아 요베주 로동당 국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일각각께서는 선군혁명명령도로 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그이의 선군명령도는 오늘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명령도를 칭송하였다.

기네군 알라미 싸모리 투레병영 제1특공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명령도의 선군혁명명령도는 제국주의면학세력이 조선에 대한 압살공세에 총력을 집중하던 1990년대 중엽에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었다.

김정일명령도께서는 선군사상을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시키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

정차방식으로 확립하시었다.

그이의 선군명령도에 조선의 국력은 백발에 두 강화되었으며 조선은 최상의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할수 있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정일명령도께서 선군혁명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8월 25일을 조국정상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날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쿠바외무성대표단 도착

헤라르도 베날베르 보르탈 쌍무총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바

외무성대표단이 2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외부

성 일꾼과 주요 쿠바공화국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

《사람들이 어는때나 달의 목소리를 듣고싶어하고 당정책을 쌍수를 들어 지지할 때 가슴들끓이지는 뜻을 천금보다 더 소중한 여김줄 아는 사람이 참된 사상일꾼입니다.》

운산군상업관리소 소장 한룡옥동무

운산군상업관리소 소장 한룡옥동무는 아는것이 많고 강연을 잘하는 일꾼으로 소문났다. 그는 무서운 정열가, 독학가이다.

그는 늘 책과 함께 살았으며 바쁜 속에서도 강연에 리용할 자료작업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군당직의강연강사로 활동하면서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전적작 1350여책을 발췌하고 백두산철세위인들의 위대성자료와 정치, 군사, 경제, 문화분야의 자료, 상식자료 685여권을 만들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강연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부르듯 하곤 한다. 하모니카, 피리, 기타, 손풍금 등 대중악기들을 능숙하게 다루는것만 놓고보아도 그가 직의강연강사활동에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왔는가를 잘 알수

때문이다.

얼마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데 대한 내용으로 그가 진행한 강연을 듣고보자.

그는 군에 있는 남새은실, 메기공장, 비섯공장들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도를 세계적발전추세와 결부하여 해설하였다. 그 실효는 대단히 컸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어느날 한룡옥동무는 고성리로 길을 떠났다. 강물이 불어나는 갈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기다릴 농장원들을 생각하며 산길을 타기 시작하였다.

이런 날씨가 그가 어떻게 갔는가고 하며 자리를 뜨려던 농장원들은 백수심리길을 에둘어오느라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한룡옥동무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젖은 옷을 말릴 사이도 없이 당의 농업정책을 해설하는 그의 모습에서 농장원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날 여러 농장을 돌며 강연을 진행하였다. 다음날 그 농장에서 풀베기실적을 3배로 올려달라니 그의 강연

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 있다.

한룡옥동무는 당초급선전일꾼으로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어느 한 공장개건전투가 벌어질 때 야간돌격대에 달려들어 일도 야고 노래도 부르면서 화선식강연선전을 힘있게 벌였으며 집에서 기른 돼지들과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구룡강제방공사장을 비롯하여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전투장에도 참가하였다.

레성강체육단 분교 교원 송은식동무

-15년간의 강연강사활동기간 어느때 제일 금지감을 가졌는가.

이 물음에 송은식동무가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연산군의 어느 한 농장에 이동강연나갔을 때였다. 산골막바지의 어느 독립반초에 도착하니 청장자가 10명 남짓 하였다.

그는 맥이 탁 풀리는감을 느꼈다. 하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찾아야 당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당초급선전일꾼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수심명을 대상

아가 참신한 강연선전활동을 벌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 참가하고 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돌면서 강연을 실감있게 진행하였다.

그는 이렇게 20여년간을 군당직의강연강사로 활동하면서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힘있게 불려일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철범

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었고 정열은 더욱 솟구쳐올랐다.

레성강체육단초전설장과 미루벌농공공사장, 신계군과 장풍군을 비롯한 도안의 곳곳에 제주밖에서 왔던 그는 당정책선전에 자기 한몸을 깡그리 바쳤다.

올해 모내기전투때 은과군 대청농장 제4작업반에서 강연을 하고난 뒤였다.

다른 작업반 당세포비서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난 그는 농장원이 자기 작업반에 가서 강연해줄수 없는가고 간청하였다. 땅거미가 진 필반을 바라보며 송은식동무는 순간 망설이지 않았다.

《강사동지의 강연을 들으면 우리 작업반이 올해 모내기에 1등은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을을 흔들었다. 그 역시 당세포비서였던 것이다. 자전기를 타고 5리 남짓이 달려 작업반에 도착하니 기다리던 사람들이 환성을 올렸다. 하루종일 여러 작업반을 돌면서 강연도 하고 모내기도 하느라 지친데다가 허

리병이 도져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완강한 의지로 강연을 하였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이이 점명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리자고 호소한 그는 절절한 목소리로 노래 《불타는 소원》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료가 풍부하고 실력덕에 강연에 흥분된 농장원들이 노래를 따라불렀다. 밤깊이 리소제자로 돌아오는 길을 헛갈려온밤 필반을 헤맸어도 그는 기쁘기만 하였다.

강연의 효과는 참으로 놀랄만 한것이었다. 그 작업반은 모내기전투에서 정말 1등을 하

였다.

후날 그 소식을 전해들으면서 그는 당초급선전일꾼의 긍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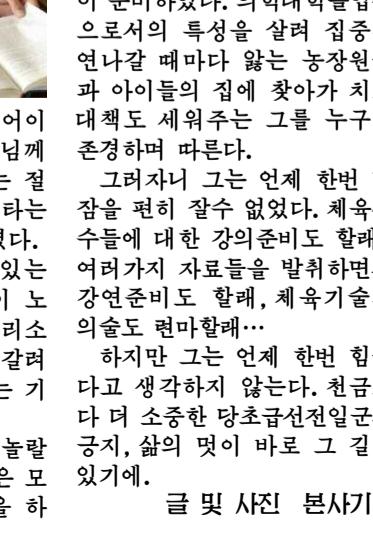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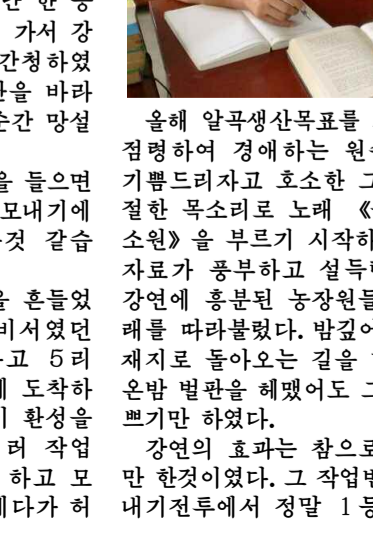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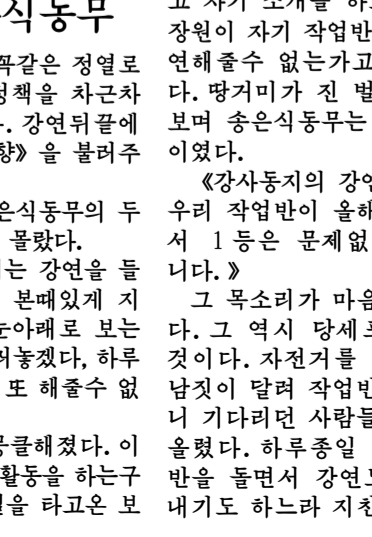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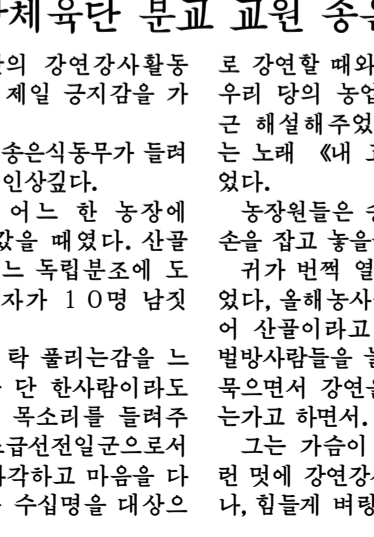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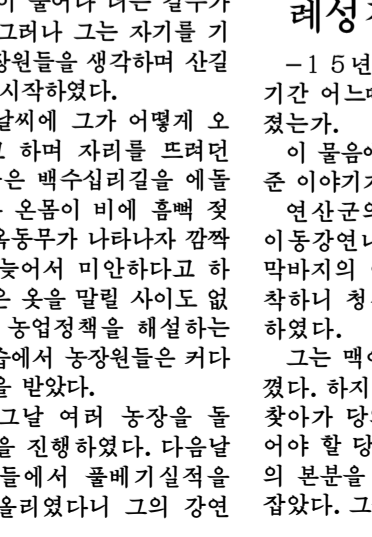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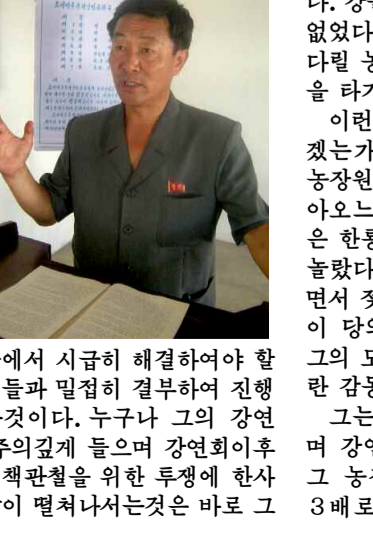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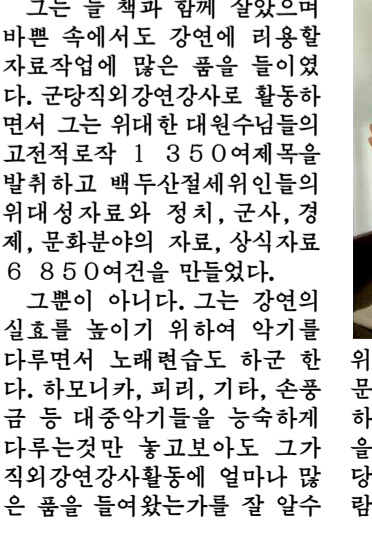
《열정적이고 다재능한 강연강사》, 《우리 선생님》, 이것이 송은식동무에 대한 대중의 평가이다.

사실 말씨가 빠른데다 화술도 좋지 못해 강연강사는 적합치 않다고 초기에는 고민도 많았었다. 그는 부단한 화술훈련으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였다. 도당직의체육강연강사이기도 한 그는 선수로서 심판으로서도 어느 종목이나 막힘없이 준비하였다. 의학대학졸업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집중집중연가할 때마다 앓는 농장원들과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 치료대책도 세워주는 그를 누구나 존경하며 따른다.

그러자니 그는 언제 한번 밤잠을 푼히 갈수 없었다. 체육선수들에 대한 강의준비도 할때, 여러가지 자료들을 발췌하면서 강연준비도 할때, 체육기술과 의술도 리마할때...

하지만 그는 언제 한번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천금보다 더 소중한 당초급선전일꾼의 긍지, 삶의 맛이 바로 그 길에 있기때.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핵전쟁연습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이 핵무기를 다시 강행하고 있는 《올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정세를 시시각각 전쟁 접경에 몰아가고 있다.

미제가 대조선적대정책에 따라 해마다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왔지만 이번엔 감행하고 있는 《올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맞춤형억제 전략》이라는 기만적인 외피를 쓰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연습기간에 그 누구의 기를 포함 모든 형태의 무력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전략》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로골적이며 도전적인 핵 위협공격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할 미제 침략군부대들의 거의 모든 지휘관들과 피휘록해공군의 현대급이상 지휘관들, 피휘록해공군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되고 있으며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이 대량 투입되고 있다.

미호전세력이 그 누구의 의지도 없는 《도발》을 구실로 임의의 시각에 전쟁도발의 불을 지피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임의의 시각에 살인도 전할수 있다는 바로 여기에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이 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군사적행위를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위기일발의 험악한 전쟁상황으로 치닫되고 있다.

가소로 웃겼든 미국이 저들의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위험성이 국제 여론의 초점으로 쏠리는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너드리를 늘어놓으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대응조치들을 그 무슨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도 미정계인물들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에 대하여 《전지역의 안정과 파괴》라니, 《심각한 우려거리로 된다》, 《느니, 그 무슨 《핵, 미사일사용후》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무력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전략》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로골적이며 도전적인 핵 위협공격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할 미제 침략군부대들의 거의 모든 지휘관들과 피휘록해공군의 현대급이상 지휘관들, 피휘록해공군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되고 있으며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이 대량 투입되고 있다.

미호전세력이 그 누구의 의지도 없는 《도발》을 구실로 임의의 시각에 전쟁도발의 불을 지피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임의의 시각에 살인도 전할수 있다는 바로 여기에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이 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군사적행위를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위기일발의 험악한 전쟁상황으로 치닫되고 있다.

통할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으로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범적책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위험성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한때에도 몇차례씩 그 규모를 늘여가며 끊임없이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는 목적은 그것을 임의의 시각에 실현으로 옮겨놓자는 데 있다. 모험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때 대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에 미호전세력들이 도전하여 해마다 도발적성격이 더 짙은 전쟁연습을 벌여놓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때 《평양정평》을 노린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으로부터 불의적인 《군사분계선 돌파》훈련, 《북침행위 행정단위부투》훈련, 우리 수뇌부를 노리는 특수작전훈련 등으로 그 내용들이 보다 침략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그 규모와 회수도 부단히 증대되고 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불안감이 어디에 있던 말인가.

미호전세력이 합동군사연습을 《년례적》, 《정례적》하는것으로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실현해보려고 하고 있는 데 이보다 더한 위험이 또 어디에 있던 말인가.

미호전세력은 임의 열개라도 저들의 전쟁책동을 합리화할수 있다.

현 조선반도간쟁쟁화사태의 위험성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의 핵전략 타격위협과 함께 그것이 지역적범위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한다는 데 있다.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별

어지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를 교두보로 하여 아시아대륙을 겨냥하려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철저히 복종되고 있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무력증강과 세계최대규모의 전쟁연습들은 불피코 지역에서 새로운 준비경쟁과 팽전을 불러오게 되었다. 국제사회가 지역정세에 관심이 있다면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해야 하며 그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미호전세력들이 북침야욕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적대응도 강도높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신군의 위력으로 막강한 국력을 다져온 우리 혁명무력은 적들의 야성을 짓뭇개버릴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합의와 제안에 극도로 위험한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선 호전광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정리하고 하더라도 힘 없었던 강자들의 회생물이 되고만다는것, 진정한 평화는 자기 힘이 강한 때에만 지켜진다는것이 우리의 철학이다.

남조선에서 도발적인 핵전쟁연습행동이 계속되는 한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는 중단없이, 그것도 더욱 강력히 취해질것이다.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

위대한 선군혁명명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것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계가 또 한 번의 배두산현을 위한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강철의 명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미가리아인론 《노보라보스니체스코 델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해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고계시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이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대 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적인유류의 다름없는 존경과 호모를 받고계신다. 이기께서는 인공지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을 구실로

다국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압살공세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강경히 맞서나가고 루 하였다.

조선의 초강대국과 견줄만한 반제혁명적립장은 반미대결전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참으로 그 종합한 들어도 미제와 세계반동들이 공포에 떠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선의 근대와 인민본위나 세계반제혁명력량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한채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다.

도이월란드대응연담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지난 기간 친출명장으로서의 비범한 군사적재치로 선군정치를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

이것에서는 김정일명도사령관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깨닫게 된 8월 25일을 선군철로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전 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히시고 미국의 가증되는 행위들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진총 명도업적과 선군명도업적이 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신 진총의 력사, 선군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고 탁월한 명군술로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한층 강화하시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인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앞으로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주권의 머뭇거리기 없이 기필코 승리한다

위대한 선군혁명명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것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계가 또 한 번의 배두산현을 위한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강철의 명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미가리아인론 《노보라보스니체스코 델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해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고계시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이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대 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적인유류의 다름없는 존경과 호모를 받고계신다. 이기께서는 인공지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을 구실로

다국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압살공세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강경히 맞서나가고 루 하였다.

조선의 초강대국과 견줄만한 반제혁명적립장은 반미대결전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참으로 그 종합한 들어도 미제와 세계반동들이 공포에 떠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선의 근대와 인민본위나 세계반제혁명력량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한채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다.

도이월란드대응연담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지난 기간 친출명장으로서의 비범한 군사적재치로 선군정치를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

이것에서는 김정일명도사령관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깨닫게 된 8월 25일을 선군철로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전 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히시고 미국의 가증되는 행위들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진총 명도업적과 선군명도업적이 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신 진총의 력사, 선군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고 탁월한 명군술로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한층 강화하시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인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앞으로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국방력 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로씨야항공우주방어군이 20일 란도미사일억제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란정부의 핵실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해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고계시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이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대 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적인유류의 다름없는 존경과 호모를 받고계신다. 이기께서는 인공지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을 구실로

다국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압살공세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강경히 맞서나가고 루 하였다.

조선의 초강대국과 견줄만한 반제혁명적립장은 반미대결전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참으로 그 종합한 들어도 미제와 세계반동들이 공포에 떠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선의 근대와 인민본위나 세계반제혁명력량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한채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다.

도이월란드대응연담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지난 기간 친출명장으로서의 비범한 군사적재치로 선군정치를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

이것에서는 김정일명도사령관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깨닫게 된 8월 25일을 선군철로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전 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히시고 미국의 가증되는 행위들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진총 명도업적과 선군명도업적이 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신 진총의 력사, 선군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고 탁월한 명군술로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한층 강화하시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인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앞으로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남조선진보세력에 대한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영국 단체들 공동 성명

영국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영국의 진보단체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남조선피압박국의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라는것을 벌여놓고 《보안법》위반혐의로 사건혐의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것은 통일과 자주, 민주를 지향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노린

비밀한 조치이다.

그들의 내란음모죄라는것은 완전한 날조이다.

남조선은 진보가 악법에 의해 처형받는 하나의 큰 과소감옥으로 변하였다.

부익부, 빈익빈의 남조선은 미국에 굴복하는 부패한 권력집단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이다.

남조선은 해마다 미군유지비로 미국상선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송부하고 있다.

이러한 남조선사회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진보적사

상을 가지고 자주, 통일을 위해 싸우는것은 극히 정당한것이다.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이다.

피휘당국자들은 진보적인사들을 감옥에 가두면서도 강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에 대해 비난하는 위선적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 성원들에게 가해진 모든 판결을 취소하며 파쇼악법을 《보안법》을 즉시 철폐할것을 주장한다.

핵외담에서의 미사일문제도의 배경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7일 한 의교석상에서 나라의 미사일개발과 관련한 어떤 협상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개발에 대해서는 론의할 여지가 없으며 특히 열강들과의 핵판회담에

이 문제와 상정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정부는 핵외담에서 평화적목적의 우라니움농축에 대해서만 협상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퍼구스사라는 미국이 인권분야에서 심각한 제도적문제들을 안고있다는것을 확인해주었다

로씨야외무성 인권문제담당 전권대표 콘스탄틴 돌고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폭로단죄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최근 미국 미주리주의 퍼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미국사회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다는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퍼구스에서 미국경찰이 적수공인의 18살 난 아프리카계미국인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여전히 인종적격요에 따라 분류되어있는 미국사회에서 긴장감이 높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의 시위였다.

경찰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청년을 총으로 쏘아죽인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경찰서건물앞에서 경찰의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범죄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금수조치가 대로씨야 제재에 참가한 서방나라들에 대한 로씨야의 강력한 반발로 보복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난 7월말 미국과 유럽동맹은 악화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를 전면에 내걸고 로씨야에 부당하고도 가혹한 추가제재를 가하였다.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에서 산생되고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줘우려는 추가적인 대로씨야제재가 우크라이나위기의 해결책이나 되는듯이 떠돌고 있다.

미국대통령은 로씨야의 금융, 에너지, 군수분야를 겨냥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마당에서 추가제재가 로씨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과연 결과가 미국 등 서방의 타산대로 되었는가?

로씨야가 보복조치를 선언한 지 한주일이 되나마나한 때로부

반구바봉쇄

에파르도대통령 파라엘 페레가 최근 지역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5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봉쇄책동은 인

간의 권리와 국제법에 대한 반복한 유린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반구바 봉쇄책동을 요구하는 유엔결의가 지난해까지 22번째 계속 채택된데 대해 강조하였다.

군민단합을 호소

베네수엘라대통령이 19일 한 회의에서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안전과 경제적번영을 위해 단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군민단합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를 안정하게 발전시키고 인민대중의 권리를 수호

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이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데서 자기 사명을 다하며 적대세력의 준동에 통된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음모책동을 단죄

유엔주재 쿠바상임대표부가 최근 공보를 발표하여 미국의 반구바음모책동을 단죄할 단죄하였다.

공보는 미행정부가 미국국제개발처를 통하여 2009년부터 쿠바의 합법적질서를 파괴하는 데 라틴아메리카나 류학생들

을 리용하기 위한 음모를 추진시켜온데 대해 신랄히 비난하였다.

공보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블랙불가담원칙 특히 주권국가에 대한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까밝혔다.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인판행

이스라엘군이 21일 팔레스티나인 거주지에 대한 공습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공습으로 이날 하루동안만도 34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사망자수는 2 083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561명이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무더기비피해

일본에서 일본의 히로시마현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23일 현재 사망자수는 42명으로 늘어나고 43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산사태와 큰물이 나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의 시위였다

경찰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청년을 총으로 쏘아죽인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경찰서건물앞에서 경찰의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범죄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금수조치가 대로씨야 제재에 참가한 서방나라들에 대한 로씨야의 강력한 반발로 보복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난 7월말 미국과 유럽동맹은 악화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를 전면에 내걸고 로씨야에 부당하고도 가혹한 추가제재를 가하였다.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에서 산생되고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줘우려는 추가적인 대로씨야제재가 우크라이나위기의 해결책이나 되는듯이 떠돌고 있다.

미국대통령은 로씨야의 금융, 에너지, 군수분야를 겨냥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마당에서 추가제재가 로씨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과연 결과가 미국 등 서방의 타산대로 되었는가?

로씨야가 보복조치를 선언한 지 한주일이 되나마나한 때로부

도끼로 제발등 짚는 격의 제재놀음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싼 로미대립이 로씨야와 미국주의의 서방의 대결구도도 만만치 않게 변격가고 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로씨야가 미국과 유럽동맹, 카타르와 오스트랄리아, 노르웨이로부러의 식료품수입을 1년간 중단한다고 선포하였다. 수입금지대상은 고기류, 물고기, 과일, 남새, 우유 등이다.

이런 금수조치가 대로씨야 제재에 참가한 서방나라들에 대한 로씨야의 강력한 반발로 보복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난 7월말 미국과 유럽동맹은 악화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를 전면에 내걸고 로씨야에 부당하고도 가혹한 추가제재를 가하였다.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에서 산생되고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줘우려는 추가적인 대로씨야제재가 우크라이나위기의 해결책이나 되는듯이 떠돌고 있다.

미국대통령은 로씨야의 금융, 에너지, 군수분야를 겨냥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마당에서 추가제재가 로씨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과연 결과가 미국 등 서방의 타산대로 되었는가?

로씨야가 보복조치를 선언한 지 한주일이 되나마나한 때로부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의 시위였다

경찰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청년을 총으로 쏘아죽인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경찰서건물앞에서 경찰의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범죄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금수조치가 대로씨야 제재에 참가한 서방나라들에 대한 로씨야의 강력한 반발로 보복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난 7월말 미국과 유럽동맹은 악화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를 전면에 내걸고 로씨야에 부당하고도 가혹한 추가제재를 가하였다.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에서 산생되고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줘우려는 추가적인 대로씨야제재가 우크라이나위기의 해결책이나 되는듯이 떠돌고 있다.

미국대통령은 로씨야의 금융, 에너지, 군수분야를 겨냥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마당에서 추가제재가 로씨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과연 결과가 미국 등 서방의 타산대로 되었는가?

로씨야가 보복조치를 선언한 지 한주일이 되나마나한 때로부

여러 나라에서 무더기비피해

일본에서 일본의 히로시마현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23일 현재 사망자수는 42명으로 늘어나고 43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산사태와 큰물이 나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의 시위였다

경찰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청년을 총으로 쏘아죽인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경찰서건물앞에서 경찰의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범죄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금수조치가 대로씨야 제재에 참가한 서방나라들에 대한 로씨야의 강력한 반발로 보복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난 7월말 미국과 유럽동맹은 악화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를 전면에 내걸고 로씨야에 부당하고도 가혹한 추가제재를 가하였다.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에서 산생되고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줘우려는 추가적인 대로씨야제재가 우크라이나위기의 해결책이나 되는듯이 떠돌고 있다.

미국대통령은 로씨야의 금융, 에너지, 군수분야를 겨냥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마당에서 추가제재가 로씨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과연 결과가 미국 등 서방의 타산대로 되었는가?

로씨야가 보복조치를 선언한 지 한주일이 되나마나한 때로부